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127

JCCT 2023-11-135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 Parse 연구방법 적용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in COVID-19 : A Parse Research Method Study

강균영*, 김진주**

Gyun-Young Kang*, Jinju Kim**

요약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COVID-19상황에서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3월 7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COVID-19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핵심 개념은 '자기와 타인 이해의 중요성 인식', '치료적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준비', '간호의 의미 탐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조망'으로 나타났다. 핵심 개념을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자기와 타인 공감', '상호적 인간관계를 위한 마음가짐', '간호의 본질 탐구와 자기실현'으로 나타났다. 핵심 개념을 개념적으로 통합시키면 '가치화', '노출-은폐', '강화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은 정신건강간호의 목적이 되는 치료적 관계를 위한 인간의 이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미래 간호사로 성장하고, 초월해 나가는 경험이었다. 본 연구는 향후 팬데믹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효율적인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경험, 정신건강간호, 온라인, 실습, 간호학생, 인간되어감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uncover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nursing students'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experience by applying Parse's research metho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 K University who took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online in the COVID-19 situ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rch 7, 2022 to May 27, 2022.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re concepts of nursing students' online practice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in the COVID-19 situation we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oneself and others', 'Preparing for communication to build therapeutic relationships', and 'A perspective on the future through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nursing'. Structural transposition was presented as 'Empathy for self and others', 'Mindset for interpersonal human relationship', 'Exploring the essence of nursing and self-realization'. Conceptual integration appeared as 'Valuing', 'Revealing-Concealing', 'Revealing-Concealing'. In conclusion, nursing students' online practice experience in mental health nursing in the COVID-19 situation was an experience of growing and transcending as future nurses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for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that is the purpose of mental nursing.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data for efficient clinical practice operations in various unpredictable situations, such as future pandemics.

Key words : Experience, Humanbecoming, Nursing Student, Online, Practice, Psychiatric Nursing

*정회원,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7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7, 2023 / Revised: October 22,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mhealth@kduniv.ac.kr

College of Nursing, Kyungdong Univ,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시기에 이론교육은 동영상 수업 및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임상실습도 교내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체 실습으로 전환되어 운영이 되었다.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접촉하면서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에서 통합하고 적용하며 비판적 사고, 분석, 의사소통능력을 익히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1],[2],[3].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은 임상수행능력[4],[5], 간호전문직관[5]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6]과 인식[7]을 변화시키며, 공감, 의사소통능력[8] 향상에 영향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팬데믹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실습이 제한될 경우에도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의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온라인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실습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 교육 콘텐츠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 교육은 사회·정서적 역량[9],[10],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9], 정신간호역량의 향상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감소를 보였다[10]. 사례기반 VR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신건강간호학실습[11]도 학습 자기효능감, 문제의 명료화,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과 Lee[12]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실습 경험을 성실하지 못함, 의구심, 답답함, 힘겨움, 여유로움, 새로운 경험으로 표현하였고, Kim, Kim과 Lee[13]는 현장경험에 대한 아쉬움, 배움을 통한 성취,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미화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자기 경험을 표현하고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생생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팬데믹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대처 및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Parse[14]의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보편적 삶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들의 서술을 ‘인간되어감(Humanbecoming)’ 이론에 반영하여 해석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이다. 인간은 개방되고, 알아가고, 세계와 함께 자신을 창조해나가는 지향적 존재이므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며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Parse의 이론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온라인 실습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연구방법[15]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을 하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주고-받는 알아감의 과정을 통해 함께 변화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기 때문이다[14].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생 중 연구에 동의한 학생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고 시작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참여자를 A, B, C...~I로 지정하고, 참여자의 구술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문장 끝에 참여자(participant)를 나타내는 영어 대문자를 함께 표기하며 P-A~P-I로 기술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3월 7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였고, 연구자가 참여자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화

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30~60분 정도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시간을 더 허용하였다. 대화 내용은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참여자에 따라 2회 이상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COVID-19 상황에서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로 시작하였다.

4. 자료분석

Parse의 연구방법[16],[17]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추출-종합(Extraction-Synthesis)

추출-종합은 첫째, 참여자의 구술에서 표현되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주요 내용을 참여자의 언어로 추출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언어로 추출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주요 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재기술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언어로부터 언어-예술을 형성하고, 넷째, 모든 참여자들의 언어-예술에 나타난 중심 의미를 종합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다. 다섯째,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구조를 종합하였다.

2)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이 연구에서 구조적 전환은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구조를 인간되어감의 원리와 그 이상으로 연결하는 작업[14]으로 더 높은 수준의 추상성으로 전환시키고, 개념적 통합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실습 경험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은유적 드러남은 참여자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을 묘사할 때 연구 현상과 관련된 인간 삶의 경험의 의미를 조명하는 은유가 표현된 참여자의 언어를 도출하였다. 예술적 표현은 연구과정을 통해 드러난 삶의 경험의 구조가 연구자의 변형된 순간을 나타내는 예술 작품에 대한 선택[16]으로 영화 대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확보

이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Padgett[18]의 다원화(triangulation), 연구대상자를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ment), 동료집단의 조언과 지지(peer support group), 감사가능성(auditability)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1저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15년간 근무한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간호학 박사이다. 현재 대학에서 정신건강간호학 이론 및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과 연구방법을 배웠고,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박사 논문 및 다수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Parse의 원서 역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호교육 경험과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추출-종합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공동창조하며 공동초월하는지[15]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1개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기술하였다. 다음은 참여자 ‘E’의 구술과 추출-종합 과정이다. 참여자 ‘E’는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선수학습으로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정신건강간호학 I 과 II’를 수강하였다. COVID-19로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을 온라인으로 2주간 참여하였다.

1) 참여자 ‘E’의 추출-종합 과정

(1) 참여자 ‘E’의 이야기

비대면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은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실습을 하며 나의 자존감 정도를 알게 되었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영화,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며 치유도 받았고, 영화, 드라마 등 매체를 시청하는 나의 시선도 변화되는 유익한 경험이었다. ‘심000’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 않았지만 직접 만나고, 환자의 차트를 보듯 구체적이어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적용하며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정신과 판례분석을 통해 의료인이 젊어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병원 환경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다. 조원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을 ‘ZOOM’으로 진행하며 프로

그램을 계획하고 참여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느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키퍼런스 시간에는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보며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실제로 정신과 현장에서 실습을 하며 직접 경험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온라인 실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나를 되돌아보고, 간호의 정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2) Essence: 참여자 'E'의 언어

1.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는 다짐을 한 경험이다.

2.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영화 등 매체를 통해 내가 치유 받는 경험이 있다.

3.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의료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다.

(3) Essence: 연구자 언어

1. 자기인식과 반성, 자기애를 인식하며 내가 치유 받는 경험이다.

2.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는 경험이다.

(4) 참여자 'E'의 언어-예술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자기인식과 반성, 자기애를 통한 자기치유 경험과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는 경험이었다.

2) 전체 9명의 언어-예술 종합

참여자 9명의 구술에서 추출한 언어-예술의 종합은 다음과 같다(Table 1). 참여자 'A'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자기이해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실습이다. 참여자 'B'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자신의 감정 탐색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간호역량에 대한 고찰의 경험이다. 참여자 'C'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치료자의 자기관리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자를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가족, 사회의 역할 등 사고의 확장을 하게하는 경험이다. 참여자 'D'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타인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경험이다. 참여자 'E'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자기인식과 반성, 자기애를 통한 자기치유 경험과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는 경험이다. 참여자 'F'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

본은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임을 배우는 경험이다. 참여자 'G'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간호의 의미를 탐색, 자기인식과 반성, 상호관계 속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의 실천 경험이다. 참여자 'H'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자기인식과 표현, 간호의 의미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조망의 과정이다. 참여자 'I'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은 자기인식, 감정탐색으로 자신을 알아차리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다짐한 경험이다.

표 1. 참여자 9명의 언어-예술 종합

Table 1. Synthesis of language-art of 9 participants

| | |
|-----|--|
| P-A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 practice that experiences the importance of self-understanding and changes in thinking about mental illness. |
| P-B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n experience of reflection on the nursing capac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others through exploration of one's own emotions. |
| P-C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n experience that expands thinking, including the importance of the therapist's self-management to form a therapeutic relationship, understand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as human beings, and the roles of their families and society. |
| P-D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n experience of understanding myself through others. |
| P-E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n experience of self-healing through self-awareness, reflection, and self-love, and an experience of feel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a medical professional. |
| P-F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n experience to learn that the basis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is self-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others. |
| P-G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n experience of exploring the meaning of nursing, self-awareness and reflection, and practic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in mutual relationships. |
| P-H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 process of self-awareness and expression, exploring the meaning of nursing, and looking at one's future. |
| P-I | Psychiatric nursing online practice is an experience in which you become aware of yourself through self-awareness and emotional exploration and pledge to live a life faithful to the present. |

2. 핵심 개념의 발견적 해석

참여자 9명의 언어-예술에서 추출한 핵심 개념의 점진적인 추상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핵심 개념은 '자기와 타인 이해의 중요성 인식', '치료적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준비', '간호의 의미 탐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조망'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핵심 개념

을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자기와 타인의 공감’, ‘상호적 인간관계를 위한 마음가짐’, ‘간호의 본질 탐구와 자기실현’으로 나타났다. 3개의 핵심 개념을 구조적으로 전환해 개념적으로 통합시키면 ‘가치화’, ‘노출-은폐’, ‘강화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은유적 드러남은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연습술의 시간이었다.”이었다.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과 관련하여 선택한 예술적 표현은 David Andrew Leo Fincher[19] 감독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대사 중 ‘누군가는 강가에 앉아 있는 것을 위해 태어난다. 누군가는 번개에 맞고, 누군가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누군가는 예술가이고, 누군가는 수영하고, 누군가는 단추를 잘 알고, 누군가는 셰익스피어를 알고, 누군가는 어머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춤을 춘다.’로 표현해보았다.

표 2. 핵심 개념의 점진적인 추상화
 Table 2. Progressive Abstraction of the Core Concepts

| Core Concept | Structural Transposition | Conceptual Integration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Preparing for communication to build therapeutic relationships A perspective on the future through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nurs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pathy for self and others Mindset for interpersonal human relationship Exploring the essence of nursing and self-real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luing Revealing-Concealing Powering |
| Metaphorical Emergings | “It was an alchemy time where I realized that I was a person who could love myself a little more.” | |
| Artistic Expression | “Some people are born to sit by a river, Some get struck by lightening , Some have an ear for music, Some are artists, Some swim, Some know buttons, Some know Shakespeare, Some are mothers, And some people dance” - David Andrew Leo Finche, Movie,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 |

IV. 논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에 대한 3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은유적 드러남 및 예술적 표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자기와 타인 이해의 중요성 인식’이다. 정신건강간호학에서 자기인식은 타인이해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20]. Son[21]의 연구에서도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을 위한 중재적 조건에 자기성찰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Hyun과 Seo[22], Jeong과 Kim[23]의 연구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환자 수용’[22], ‘실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됨’[23]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처럼 정신건강간호학실습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와 타인 이해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핵심 개념이 도출된 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이 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자기와 타인 이해의 중요성 인식’은 인간되어감 이론의 첫 번째 원리[14],[15]에서 나오는 가치화(Valuing)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팀원과 교수와의 만남, 영화, 사례기반 온라인 프로그램 등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 환경에서도 자신을 알아가며,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등 인간존중의 신념을 경험하고 실천하였다. 이는 가치화에 따르는 행동이다. 이런 신념은 성숙하고 발전적인 한 개인,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식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은 되어감(becoming)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치료적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준비’이다.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실습현장에서 환자-간호학생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Yang[24]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피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환자 외에도 주변 사람들과 치료적 관계와 공감적 대화법을 적용하고 싶은 생각(P-A)”이라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 실습 안에서도 교과목 목표 일부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수자는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을 운영할 때 임상실습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치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을 알고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 하겠다[14],[15]. 자기노출은 용기를 수반하며 개인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며[14], 개인은 대화 속에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14] 간호대학생에게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간호의 의미 탐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조망'이다. 참여자들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찾아가며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의 '간호의 의미 탐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조망'의 과정은 '간호의 본질 탐구와 자기실현'으로 구조적 전환을 함으로써 Parse 이론[14]의 강화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꿈꾸고 가능성을 상상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체험의 의미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연금술의 시간이었다(P-I)"라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드러났다. 비금속에 숨어 있는 금을 발견하고 금으로 만들어 가는 연금술처럼 온라인 정신건강간호학실습 과정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귀한 존재임을 수용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금속에서 금을 발견하고 금으로 만들어지는 연금술처럼 끊임없는 탐색, 성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짧은 2주간의 실습기간 일지라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내·외적인 갈등을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는 과정이 연금술의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 전반을 통한 과정이 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또는 대면 정신건강간호학 실습이 연금술의 과정 중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교수자들은 교육과정, 교수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과 관련해 선택한 예술적 표현은 David Andrew Leo Fincher[19] 감독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감독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대사 중 '누군가는 강가에 앉아 있는 것을 위해 태어난다. 누군가는 번개에 맞고, 누군가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누군가는 예술가이고, 누군가는 수영하고, 누군가는 단추를 잘 알고, 누군가는 셰익스피어를 알고,

누군가는 어머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춤을 춘다.' 이었다. 참여자들은 2주간의 온라인 실습 과정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치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간호의 의미와 미래 간호인으로서의 고민하고 있었다.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인간관계, 의사소통, 자기 탐색과 성찰을 하며 자기실현을 위한 다짐과 준비를 하였음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19]의 영화 속 대사로 표현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 경험은 자기와 타인 이해의 중요성 인식과 치료적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준비와 간호의 의미 탐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조망을 경험하는 되어감의 과정이었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온라인 실습의 경험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며, 스스로 강화되어감으로써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이 연구를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간되어감 교수-학습 모델(The humanbecoming teaching-learning model)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교수자-학습자가 인간되어감의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경험의 의미를 찾고 율동적 패턴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며 강화되어가는 과정에 함께한 것은 교수자로서 학습자를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효율적인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추후 Parse의 연구방법에 근거한 대면 정신건강간호학실습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A. Lofmark and K. Wikbald, "Facilitating and obstructing factors for development of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A student perspective," *Journal of*

- Advanced Nursing(JAN)*, Vol. 34, No. 1, pp. 43–50, April 2001.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3411739.x>
- [2] R.C. Feng, M.J. Chen, M.C. Chen, and Y.C. Pai,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and disposition of clinical nurses in a medical center,"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JNR)*, Vol. 18, No. 2, pp. 77–87, June 2010. <https://doi.org/10.1097/JNR.0b013e3181dda6f6>
- [3] O.S. Lee and Y.G. Noh, "A comparative study Program Outcome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Integrated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4, pp. 23–30, July 2023. <https://doi.org/10.17703/JCCT.2023.9.4.23>
- [4] K.L. Kim and B.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JKCA)*, Vol. 14, No. 10, pp. 885–896, October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85>
- [5] G.Y. Kim,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JCIT)*, Vol. 12, No. 2, pp. 63–71, February 2022.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2.063>
- [6] E.A. Song and H.J. An, "Experience Process of Reducing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in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JKPMHN)*, Vol. 25 No. 1, pp. 37–47, April 2016.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1.37>
- [7] S.K. Son and E.Y. Park,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Mental Disorders in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JKPMHN)*, Vol. 29, No. 4, pp. 285–295, December 2020. <https://doi.org/10.12934/jkpmhn.2020.29.4.285>
- [8] D.H. Seo and I.J. Jeong, "The Effects of Role Playing on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JKEIA)*, Vol. 13, No. 4, pp. 263–270, June 2019. <https://doi.org/10.21184/jkeia.2019.6.13.4.263>
- [9] Y.M. Song, "Effects of a Online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on th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Counseling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JLCCI)*, Vol. 20, No. 19, pp. 271–290, October 2020. <https://dx.doi.org/10.22251/jlcci.2020.20.19.271>
- [10] Y.M. Song, "Online and Blended learning application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1, No. 11, pp. 289–303, June 202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1.289>
- [11] Y.S. Lee, J.H. Kim, J.Y. Lim, and G.M. Kim, "Effect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Online Education Using Case-Based V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JKPMHN)*, Vol. 30 No. 4, pp. 369–378, December 2021. <https://doi.org/10.12934/jkpmhn.2021.30.4.369>
- [12] Y.S. Kim and K.S. Lee, "Onlin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Vol. 22, No. 7, pp. 160–171, July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7.160>
- [13] H.S. Kim, E.M. Kim and D.S.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in School Practice: Focused o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JKAIS)*, Vol. 22, No. 2, pp. 169–178, February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2.169>
- [14] R.R. Parse, *The Humanbecoming Paradigm: A Transformational Worldview*, Discovery International Publication, pp. 219, 2014.
- [15] R.R. Parse,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A perspective for nurse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2n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pp. 144, 1998.
- [16] R.R. Parse, "Feeling respected: a Parse method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NSQ)*, Vol. 19, No. 1, pp. 51–56, January 2006. <https://doi.org/10.1177/0894318405283553>
- [17] R.R. Parse, "The humanbecoming modes of inquiry: Refinements," *Nursing Science Quarterly (NSQ)*, Vol. 24, No. 1, pp. 11–15, January 2011. <https://doi.org/10.1177/0894318410389066>
- [18] D.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Inc, pp. 178, 1998.

- [19] David Andrew Leo Fincher, Movie: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2008.
- [20] E.J. Oh, S.H. Ko, J.Y. Kim, and S.R. Kim,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JKNAAS)*, Vol. 21, No. 4, pp. 426-434, September 2015.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426>
- [21] M.R. Son,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rapeutic Use of Self in Web-Based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Focusing on Role-Play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KPMHN)*, Vol. 31, No. 2, pp. 204-218, June 2022. <https://doi.org/10.12934/jkpmhn.2022.31.2.204>
- [22] M.S. Hyun and M.A. Seo,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s of the Nursing Students' in Psychiatric Setting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KPMHN)*, Vol. 9, No. 1, pp. 44-53, March 2000.
- [23] I.J. Jeong and S.Y. Kim,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during the COVID-19,"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JKEIA)*, Vol. 17, No. 1, pp. 295-301, January 2023. <https://doi.org/10.21184/jkeia.2023.1.17.1.295>
- [24] Y.K. Yang,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KAFN)*, Vol. 25, No. 1, pp. 58-67, February 2018. <https://doi.org/10.7739/jkafn.2018.25.5.1.58>